

# ‘양심’의 거울에 ‘체면’을 비춰야 하는 이유

《똑같은 것은 싫다》 펴낸 조홍식 교수



조홍식 교수

창작과비평사/A5신/292면/7500원



조홍식 교수(35, 가톨릭대 국제관계학부)는 《똑같은

것은 싫다》(창작과비평사)에서 프랑스 사회를 솔직하게 묘사했다. 솔직한 묘사는 무엇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의 빛과 그늘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일이다. 조교수의 분석적 시선이 훑고 지나간 프랑스 사회는 독자의 시선 앞에 매우 복잡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

그가 프랑스 사회를 구석구석 공들여 바라본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한국에 프랑스의 올바른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둘째, 프랑스란 거울에 한국사회를 반성적으로 비춰보기 위해서다.

“프랑스와 한국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윤리적인 판단준거, 문화적 취향 등이 판이하게 차이납니다. 비근한 예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죠.”

## 프랑스와 한국의 친화성

하지만 조교수는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묘한 친화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두 사회의 구조적 상동성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보니 비등(比等)한 사회 문제를 공유한다. 프랑스는 중

프랑스는 풀수록 복잡해지는 방정식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율 이성에 기초한 사회임은 분명하다. 프랑스는 ‘양심’ 사회이자 휴머니즘과 책임감 같은 긍정적 가치가 자본주의 논리를 압도하는 사회다. 반면 한국은 ‘체면’ 사회다. 관습의 메커니즘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비주체적 삶을 양산해낸다. 이 지점에서 프랑스는 한국사회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

앙집권제의 전통이 강하다. 정부주도형 문화산업이 많고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의존도도 높다. 모든 문화와 산업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벌중심 사회란 점도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도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

하는 기준은 학벌이다. 거기서 파생하는 조직의 룰과 소속감도 프랑스 사회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는 서양이라면 무조건 ‘개인주의’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의 환상을 교정한다. 이밖에도 비슷한 경우는 많다.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녀교육이 엄하고 가족개념이 뚜렷하다. 재래식 장이 여전히 열린다는 점도 프랑스에 가서 반갑게 보는 풍경 가운데 하나다.

조교수는 한국이 ‘체면’ 사회라면 프랑스는 ‘양심’ 사회라고 말한다. 체면이 관습의 메커니즘으로 개개인을 규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방법이라면 양심은 개개인의 자율의지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체면사회의 구성원들에겐 타인의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양심사회에선 “나의 행동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만약 체면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충, 효, 배려심 등의 긍정적 가치라면 그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같은 경쟁논리와 결합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죠.”

조교수는 양심사회에서도 가치관이 뚜렷한 집단간의 갈등이 종종 유희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양심사회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즘과 책임감 등의 긍정적인 가치가 자본주의 논리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강조한다. 이런 사회심리적 기제가 교수, 공무원, 교사, 의사, 저널리스트 등의 프랑스 공인사회를 신념과 양심으로 뭉친 ‘보까시옹’(사명감)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 문제의 진원지 분명히 드러나

“프랑스는 풀수록 복잡해지는 방정식입니다. 개인적 가치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집단이나 공공성이 개입되는 부분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입니다. 이성적이면서도 정열적이고, 평등을 외치지만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견디는 것도 이런 구분을 개개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교수는 미국같은 거대국가에 한국을 빗대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다고 본다. 규모가 거대한 미국식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다보면 ‘어디부터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문제의 진원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프랑스가 낫다고 조교수는 주장한다. 정치·사회 등 여러 국면이 규모와 스타일에 있어 한국사회를 포개 보기에 적당하다. 그는 서로 유사한 하부구조에서 출발한 두 나라가 문화나 의식의 측면에서는 놀라울 만큼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의 진원지가 그만큼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 강성민 기자